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등 선
편집인 이 철
주 간 김 형 필
편집장 박 정 호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 3 5 3 호
<주간>
1982년 10월 14일
매주 목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말의 쓰임새 ㉖ 깔깔하다

옷감이 부드럽지 못한 경우 깔깔하다고 한다. 또 마음이 밝고 바른 경우에도 깔깔하다고 한다. 그런데 성미가 나쁘고 말썽을 일으킬 때도 깔깔하다고 한다. 감촉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격의 경우에는 그냥 깔깔하다고 하면 어느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울때가 있음것이다. 좋은 쪽으로 미 밝아 쓰기는 하지만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깔깔하다의 앞뒤에 쓰는 말에 유념해야할 것이다.

스와힐리어과등 4개학과 신설

교무처 내년입시 확정 용인대에 입학정원 156명 늘어

3지망 허용에 내신성적 30%, 모두 과별로 전기전형

문교부가 각 대학이 신청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지난 9월30일 최종승인함에 따라 본교에서도 이에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시에 관해 교무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해와 같이 모집시기는 전기 (前期) 로 하고 모두 과별모집을 실시하며, 내신성적의 30%를 반영하며 제3지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대학은 어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내년부터 분리 확사개편되며, 이른캠퍼스에 경주계산학과와 용인대학에 스와힐리어과, 이태리어과, 태국어과등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총입학정원은 지난해3,354명에서 3,510명으로 156명이 늘게 되었다.

용인대학 어문대·사회대로 내년 개편

학과신설, 정원조정

내년에 본교 이른캠퍼스에 경주계산학과가 분리해 소속으로신설되고 용인대학에 스와힐리어과, 이태리어과, 태국어과등 3개과가 새로 설치된다. 이에따라 용인대학에신설되는 3개학과에 각각 졸업정원 40명, 입학정원 52명이 늘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입학정원이 모두 156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른 캠퍼스에 신설되는 경주계산학과의 입학정원 52명은 「서울소재 대학의 증원여계」라는 문교부 방침에따라 기존정원에서 자체조정키로 했으나 학생수가 많은 서양어대학의 몇몇학과에서 조정하기로 원칙만 정했을뿐 아직 확실한 결정을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김동선총장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이후로 실력여부에 많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던 용인대학의 어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의 개편은 이번문교부의 최종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개편되는 어문대학에는 영어과 등 기존이학계 10개학과와스와힐리어과등 신설 3개학과를 함께 소속시키게됨으로써 모두 13개학과를 포용하게 되었으며, 사회과학대학은 경외과등 몇몇학과 신설을 승인해주도록 문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승인을 받지못해 기존의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등 2개학과만이 소속하게 되었다.

이번 캠산학과의 신설로기초과학분야뿐 아니라 모든분야의 학문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줄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택과목으로는 강좌가설치되었음은 물론 부련공분야로서 캠산학과도 새로 설치할것을 신청히 결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다음 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용인대에신설된 아프리카 토속어중의하나인 스와힐리어는 케냐, 탄자니아등 아프리카 대륙 중동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사용하고 있다한다. 반투어등수많은 아프리카 토속어중 경치, 경제, 문화쪽으로 가장비중이 크고 광범위한 사용권(圈) 을 가진 스와힐리어의 이번 신설로 대아프리카 진출에 선도적 입장을 건지할 수 있게되었다. 이와함께 현재 미설치된 동구권인어 신설계획도 검차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보인다.

전형방법

문교부의 「종합대학 3지망 의무화」방침에 따라 3지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3지망도 인문과 자연으로구분해 동일계열내에서만 가능토록했으며 2·3지망에 따른 감점은 없다. 선발방법은 제 1지망에서 80%를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제 1지망 탈락자와 제 2지망자가운데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제 3지망은 제 1·2지망까지 떨어져서 사정했어도 미달될 경우에만 사정대상이 됨수있다.

내신성적은 30%를 반영하게되며 내년부터 본교에서도 입주비로 사정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눈치작전은 훨씬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일계 전학해택은 경영학과만 해당되는데 주야간에 걸쳐 정원의 10%로서 모두 13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형일시는 「전국대학통일화」라는 문교부 방침에의거하여 원서교부는 1월 5일~12일까지이고 접수는 1월 8일~12일까지이며 면접전형은 내년 1월14일에 실시된다.

잡학, 홍보대책

지난 해와같은 특별장학생선발여부는 아직 결정하지못하고 있다. 이는 문교부가별도재원이 아닌 특별장학금지급제도를 전면금지함에 따라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이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5일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UC버클리가 협정내용을 지난10월 1일자로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를 입시에 적극 홍보할방침임으로 알려졌다. 협정서 본교는 UC버클리의 하기학교에 50여명의 학생을 파견하고 수료후 상호 학점을 인정키로 했었다. 이밖에 프랑스 소르본대학 일본 소피아대학도 이와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 홍보대책으로는 지난해의 특별장학생을 적경 모교에 방문하도록하는 방법과, 등문교사를 통한 방법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방명문고교 (본교타수합격기준) 에는 본교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서 우수학생을 추천할 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 이외에 그동안 별관실을 무지 않았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도 적극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홍보용책자도 일찍해서 바람지와같은 체재로 변경할것등의 세심한 검토를하고있다.

이번 학기 188명 제적, 휴학 722명

미등록 제적 133, 일반휴학이 휴학자절반

이번 학기에는 모두 722명이 휴학하고 제적생이 모두 18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교무처에 의해 밝혀졌다.

휴학생분포를 보면 본교주간이 427명이고 야간 강좌가 106명, 용인이 189명으로 그 분포가 밝혀졌는데 입대휴학생이 전체 휴학생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등록과 휴학기간초과로 인해 제적된 학생은 본교주간이 각각 50명, 29명, 야간 강좌는 18명, 7명, 용인은 65명, 22명으로 밝혀졌다. 제적학생수가 전년 보다 보다 68명이 늘어난것은 용인대생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본교만으로는 지난년 120명보다 19명이 줄어든 숫자임다는 것을 강조했다.

병역집체 추가교육 미입소대상 25일부터

지난 학기에 속문졸업생명령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1학년 학생들의 병영집체교육 미입소자를 대상으로한 추가 보충교육이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에걸쳐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다.

이번에 추가 보충교육 대상자는 1학년 학생중 전반기 미입소자와 2·3·4학년중 고 한다.

중간 시험 일정 재조정

3학년, 수학여행후 22일부터 수업중에

교무처에서는 중간시험일정을 종도변경해 발표했다.

원래 1, 2학년 시험기간이 있던10월11일 (월) ~14일 (목) 까지는 4학년이 시험을 치루게 되며, 3, 4학년의 시험기간이었던 15일 (금) ~21일 (목) 까지가 1, 2학년 기간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한편 학생들의 요구로 3학년의 중간시험은 기간및실시방법이 2번 변경된 끝에 10월22일~11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모두 수업시간중에 담당교수와 적당한 일시를 협의해 치루도록 최종확정했다. 한편, 3학년 시험일정의 거듭된 변경과 잦은 수학여행과 관련해 관련해으로 시험을 치루지 않았었으나 교무처에서 이번 학기부터 시험후 여행을 하도록학사일정을 조정한데서 비롯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영조 교무처장은 「시험과 여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학사일정연구팀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미리 주지시켜 「올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초만원 승차로 대형사고 우려

용인 직통시외버스, 정원의 2배이상 불편가중

학교버스 4일부터 운행폐지로 승차난 더욱 심화

일반버스 정착때까지 학교버스 운행재개 희망

서울역에서 용인대까지 직통으로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에 정원의 2배이상으로 승차, 손님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과 이를틈타 학생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9시50분도착 버스에는 모두 111명이 하차했는가하면, 10월 6일 9시28분 도착버스에는 총 105명이 승차하는등 등교시 평균 100여명이 넘는승차상태로 운행되고 있는실정이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서울행 버스를 승차하고자하는 학생들은 매이상 승차할수 없어 평균 1시간에서 1시간반이상을 기다려야 다음 버스를 이용할수 있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하고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학교버스의 운행폐지로 발생하게된것으로, 학교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학교버스 운행을 재개했으나 지난 79년 단 하루에 그치고 다시 중단되었다. 한편 용인을 소재지를 둘러싸고 등교하는 학생의 경우도 9시 출발버스를 놓칠 경우, 11시 버스를 승차할수밖에 없어 이 월수 없이 결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0~1번 버스의 배차간격도 1시간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승차를위한 도중 남비시간이 평균 1시간이상을 넘고 있는 것은 이곳은 실정을 감안해 『등하교시간의 배차간격의 폭을 줄여줄것』과 일반버스운행의 정착화까지 『학교버스의 운행재개』를 결심히 희망하고있다.

내용다양한 종합학술제 27일부터

단대별로 10일간 개최, 사범대학 서양어대 준비 미비

총단주최 모의 UN총회준비 마무리 단계

10월27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될 제 2회 종합학술제의 계획이 일부 밝혀졌고 일부는 확실한 준비중에 있다.

학술행사를 통하여 외대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올해로 두번째로 개최되는 종합학술제는 종단 주관으로 각단과대학별로 개최된다.

종단 주최 행사로는 11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로의 UN총회가 국제테러리즘을 의제로 11월 8일 숭의 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이에따라 10월 8일 원고마감을 했고 8일현재 12개교에서 참가신청이 들어왔으며 15일에 출연진을 확정해 30일부터 리허설에 들어간다고 모의 UN 총회 진행관계자는 밝혔다.

각 단대별 행사로는 법정대에서재 8회 법정학술논문발표대회를 「정치 발전에 관한 제문제의 고찰」이라는 주제아래 11월 4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상경대에서는경영학과주최로 모의주주총회가 있게되고 11월 5일에는 「문리대에술제」가 개최된다.

한편, 사범대는 아직학술제계획이 밝혀지지않았고 서양어대는 책임자의 사실상 휴무상태로 계획을 거의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벌을 찾는 세계의 발길

핀랜드대사, 니끌라이 돌스또이등 본교방문

이번 학기들어 강연과 친선등을 목적으로한 세계각국 저명한 외국인의 본교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제 5차세계인론인대회 참석차 방한중인 미국 U.C 버클리의 「마클레스 파이크」 교수가 지난 10월 4일 본교를 방문해 김동선총장과 환담을 가졌다.

조재현 (V과) 교수의 안내로 본교를 방문한 「마클레스 파이크」교수는 「인도지나반도」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5일 본교와 자매결연을맺은 UC버클리의 첫번째 손님이다.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Hekki Lapanen주한 핀랜드대사와 헬싱키대학생 9명이 대학원초청으로 본교를방문해 김동선총장을 찾아 환담한 후 연수원식당에서 초청관계교수와 학생이 참석한가운데 1시간30분가량의 토론회도 가졌다.

이번 핀랜드대사와 헬싱키대생들의 방문은 지역경제개발과 간략한 시장조사와 아울러 한국대학의 국제경제및 마케팅의 교육방법과 관광등을 목적으로한 방한계획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 교양학관 104호에서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또이」의 후손인 니끌라이 톨스또이경이 「톨스또이의 문학과 사상」 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러시아어과 주최로열렸다.

니끌라이 톨스또이는 현재 영국에 정착해서 「상임문학협회」 회원과 옥스포드 성안토니오대학의 회원으로 활동중인데 「알약의 죄생 (78년) 」 「스탈린의 비밀전쟁 (80년)」 등의 주요저서가 있으며 , 현재 「1953년이래의 톨스또이가의 역사) 1953) 」를 집필중이라 한다.

또 니끌라이 톨스또이씨와 함께 국제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방한중인 인도 국립문화협장 Dr. R. S. Kelkar의 보 초청강연회가 10월 6일연수원 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인도독립이후의 힌디 문학」이었다.

「슬라브 연구」 정기학술연구지 창간

소련일 동구문제 연구소

본교 소련일 동구문제 연구소 (소장 · 강홍주부교과수) 정기 전문학술연구지 「슬라브연구」 창간호를 지난 9월15일 발행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의 대외관계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2년 1월에 설립되어 그동안 연구중서 제 9집과 소련종합 3권을 발간했는데, 이번정기간행물 「슬라브연구」 창간으로 국내외의 학술개발 및 교육과제 이바지하게되었다.

등록률집계 한달넘게 늑장

업무 소관부처 불분명으로 지연

추가등록기간이 지난 9월 17일 끝난지 한달 가까이 이르도록 등록률이 집계되지않아 아직까지 최종 등록률이 밝혀지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등록률의 집계에 관한 사항은 재무처 경리과에서 관장해 온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학기들어 경리과에서는 교무처 학과과 소관이라고 말하고있다.

한편,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등록률을 집계하는 공식기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육원, 첫 졸업시험

교육대학원에서는 10월16일 올해 첫 졸업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교육학 외국어 전공이다. 졸업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논문제출이 승인된다.

무역대학원 체육대회 환영회개최

무역대학원에서는 신입생환영회및 체육대회를 10월17일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본교운동장에서 9시부터 축구, 배구, 배니스 (족식) 줄다리기, 파트너게임등으로 대학원 재학생및 교수등참석자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회가 열릴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5시에 대학원 1층교내에서 Party 및 게임을 진행순서로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다고한다.

사 령

임 : 경기자

수습기자 김명경(일어 · 1)
〃 서동주(독어 · 1)
〃 배재웅(영어 · 1)
〃 서정기(영어 · 1)
〃 손지애(불어 · 1)
〃 송희영(불어 · 1)
〃 안수웅(불어 · 1)
〃 정재욱(서어 · 1)
〃 이광재(서어 · 1)
이상 10명

면 : 수습기자

김병호(독어 · 1)
김정희(독어 · 1)
배정기(중국어 · 영어 · 1)
이상 3명

이상 10월14일자
외 대 학 보

학생소식

▲내년 스와힐리어과 신설

—다음엔 우주언어까지 가르치기죠?

▲용인직통버스 만원사례

—시내(?)교통난도 아닌데.

벽의자

▲일이 많으면 말도 많기 마련이다. 나름대로 다사분방했으나 신문을 제날짜에 발행하지 못한 신문사에 대한 언급이 신문의 기사를 대신할 만큼 풍성했던 「레플앗던 말」이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듯하다. 우선 말씀의 주인공인 독자여러분께 353호발행이 지연되었음에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아니면말죽에 연기나와」 식의소문이 사실가능성여부를떠나 부인할요는 없으나 「혀보는말」들에 겁근하기쉬운 유언비어에 억측을 막기위해서라도 한마디 덧붙이려한다.

▲본보 352호발행이후 배포에대한 그간의 사정은 독자여러분이 호흡한 기부파보아온 사실대로이다. 쏜살같이지나간 최소한의 노력으로 「면죽지 말」 주어달금하려고 한 것은 제일글에 명시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하였다.

빈의자자 (子) 는 책임에 따른 당위의 댓가는 충분히 받아들이긴 보도결과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떠도는말」에 감히 나선다.

▲9월23일 발췌공연무의일면의 사건을 지켜보는 는 위치마다 다른것으로나 바났다. 하나의 사실조서는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판단여부는 자신의 위치와책임과 권한에 따른 위치에서 비롯될 것이다. 명분의 이유를 떠나 객관적사실하나하나에 입장을 달리한다해도 서로 다름이 없을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들의 정도의 파다나 사건의 강약에따라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수가 있다. 또한 이런 결정이 결론의 압박제공에 따른 판단외결과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의 노력으로 「면죽지 말」 여부로 귀결되어결태는 사실의 정·부 (正·否) 보다 이 (利) 의 독실에따른 판단인 경우가 많은듯하다.

▲신문은 이러한 판단여부가 가장 잘 드러나는것이 하나이다. 그런데 가끔 모호성에 의해 신문의 활자가 사승가죽에 씌울은 가프랄 (日) 자로 뜯길하거나 또 말씀은 할지, 돌넘, 돈넘에 밀려난 실종이라는 비난이 자자하지만 그때만큼 정이들이 정론과 직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때도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위당선생은 시사용보편집인으로서 그 장간사를통해 「옛날에는 패관과 야사가 있어서사기를 것는사람이 이를 취급하더니 지금은 그것이 신문이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신문이 역사의 기록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일은 불편이지만 하나하나를 역사의 기록으로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이의 뜻이 통하도록 전달할 것을 이번기회에 새삼 다짐한다.

<박정호>

시대를살아가는 모든이의뜻

알 림

10월 7일 발행 예정이었던 353호는 내부 사정으로 14일에 발행되었음을다. 다음 354호는 중간고사 관계로 1주간 휴간하고 10월28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대학시절에 쌓은 영어실력이 좌우합니다!

10월호
내용이 훨씬 알차고 새로와졌읍니다.
보너스 두 정기구독자 접수중!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268) 9936 (266) 9905 (265) 0509 (273) 2588 부산(802) 7435 (802) 7445 대구(45) 8890 대전(26) 7176 광주(2) 2376 전주(2) 5328 수원(6) 1478 인천(73) 7170

時事英語研究
독점게재 南北베트남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A Tale of Two Cities) ····· by Peter Hastings
●미국 외교정책은 아주 잘못돼 있다 (What Détente Is And Is Not) ····· by Richard Nixon
●레바논의 참극을 딛고서 (From the Ashes of Devastation) by Hosni Mubarak
기획 ○세계 명문대학 순례 / 허피의 발상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재 ○현대 영미시 세계 / 자연을 감응하는 정신 : 도로우의 겨울회상
○박동현 교수의 과학수첩 (제 1회) / 새로운 陸上交通 ○서반아어 강좌
○영어회화 가이드 ○실력이 부쩍 느는 관용어 해설 (Enrich Your Idiom Power)
「한국代表短篇」英譯 잔인한 都市 BOOK BONUS: EXPELLED
■ 해외논조 / 해외잡학 만화선 / 하루新語 ■ 속보英語 / 무역영어강좌 / Pop의 세계 ■ 내가 요즘 읽는 영어원서 / 삶을 美 속아여설 ■ 美作文교실 / Men & Ideas ■ TOEFL Test / 나의 유학기 / 英語회화톡 ■ Art Buchwald Column / 영어회화
映画台詞 캣 피플
英語世界
독점전재 : 外誌에 비친 제주도의 해녀생활
타임머신과 시간여행 (Time Travel)
천생연분도 가지가지 (It Was Love at First Bite)
다이어트 지침의 어젓가지 오류 (Debunking Those Dieting Myths)
主要記事 英語/젊은 세대에게 주는 글/음악이야는 분위/걸작단편 / 장리가 세상을 바꾼다/성격퍼즈/과학과 인물 (M.M.)/생활과학/이슬 우려/꽃꽂
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講座 생활에 응용되는 英語숙제 한맥로 배우는 영어회화
映画台詞 十戒
時事英語研究 값 2,200원
英語世界 값 2,100원
(株)時事英語社

자세한 우리말 해설이 들어있어 영어회화를 쉽게 배울 수 있읍니다.
New Horizons in ENGLISH 카셋트
Mellgren/Walker共著 미국 Addison-Wesley社 原刊
American Idiom의 양념이 많이 쉬인 영어회화 를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카셋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이 교재는 Young Adults(젊은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군살 없는 간결한 표현으로 참신한 화제를 통해 생생한 구어의 구사력을 익히게 합니다.
■「젊은 대화」 중심이어서 외우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것이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미국식 영어다운 Idiom을 많이 익히게 하는 것도 이 교재의 남다른 특색입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우리말 해설이 들어있어 쉽게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게 했읍니다.
■ 젊은층에게 어울리는 화제와 상황이 학습을 즐겁고 보람있게 합니다.
■ 나선식 계단(Spiral)을 올라가듯 진도에 따라 복습이 자동적으로 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가 뛰어납니다.
4S方式의 독특한 특색
● Short Sentences (짧은 口語표현)
● Simple to Learn (익히기 쉬운 학습)
● Speedy Progress (빠른 학습성취)
● Spiral Approach (자동 복습 방식)
全秩 : Text 6권/주해서 6권/카셋트 30개 값 150,000원
주문전화 : 서울(28) 8264(268) 8823(272) 8558(28) 8265 부산(43) 3087 대구(45) 8858 대전(26) 7176 광주(2) 2376 전주(2) 5328 인천(73) 7170 수원(6) 1470
(株)時事英語社

졸업정원제의 정착(定置)를 위한 제언

이 은 진

(사대교수·교육학)

Ⅰ. 졸업정원제와 교육의 과정

졸업정원제의 근본취지는 「잘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잘 가르치는데에 모든 교육적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학생의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복잡하다. 여기에는 학습자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가정환경등의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며 학교에서는 교수의 교수방법에서부터 학생에게 대한 개별적 이해, 그리고 수업의 질을 상승시키는데 작용하는 각종 시청각 매체및보조자료의 준비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사회 심리적환경및 각종시설등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실의 수업과정에서 하나의 체계적인 투입요인으로 작용할때 학습자의 학업성취는 극대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탈락자를 결정해야하는 졸업정원제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는것이 필수선행요건이라 할수있다.

1981년 대학생의 증원에 따라 각대학은 미쳐 교육적 여건을 갖출 시간적여유도 없이 많은 학생을입학시켜야할 실정이어서 각대학은 현재의 여건 아래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충격을 헤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내 3개 대학의 효율적인 새교육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S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인 S대의 경우 1981년의 학생증원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강의실 증축과 졸업교원및 조교의 대폭증원을 건의하고 있다.

대단위 강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1)조교제도 이수자를 강의 보조원(T.A)으로 활용하고, (2)각종 교수매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실의 부족을 해주기 위하여 1일 10시간 연일제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강의실 사용 빈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학업 성적 평가에 있어서, S대는 분반이 필요한 교양과정과 기초과정은 해당 교수들의 출제, 공통채점 등 공동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는 20%, B는 30%, C는40%, D는 10%의 인원비율로학생의 성적을평정한다고있다.

<H대학의 경우>

1981년도 대학증원의 전년도에 비해 (1천 3백명이 넘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의 1백 8개의 정원을 현재 55%를 65%로 조정하여 1일 8시간으로 강의시간표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비율과 같다.

(1)강의실의 부족으로 시설확충을이 높다.

(2)전임교수의 증원이 시급하다.

(3)1일 10시간의 전일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4)교양과정과 1학년의경우 1학기 조파공전 대단위 학급(100명내지~300명까지)를 구성하여 강의하고 있다.

(5)조교의 활용률이 높다.

(6) 평가방법에 있어서분반 교과는 <주>로 교양과목과 계열기초과정) 는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7) 평가의 결과는 상대분포에 의거 평점평균평비를 정하여평점하고있다.

(8) 대단위 강의에 있어서 교육공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Ⅱ. 졸업정원제와학사경고제와의 관계

졸업정원제는 대학에 일단 입학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졸업이 가능하던 것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심지어 졸업할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 대학의 면학풍토를 조성하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졸업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초과 모집인원은 재학중 중도에서 탈락하거나 수업을 포기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전에는 학생들의 교과상황이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유급 및 학점이수를 제한하는 정도

<표1> 학점·성적분포별 제한학점 및 제적조건

학점생활관리	제한학점	제 적 조 건	제한학점누계	제적(제적)
1.30미만	9	· 연속 2회 · 연속 3회	18 12	J S
1.50 미만	5	· 계학중 3회	18	H
	없음	· 계학중 3회	없음	Y
1.60 미만	없음	· 계학중 3회	없음	E
1.75 미만	2~5	· 연속 2회	4~7	H
1.80미만	6	· 연속 2회	12	K
	6	· 계학중 3회	18	J
2.00 미만	없음	· 연속 3회	없음	K
	6(3,4학년)	· 없 음	—	Y
	6	· 연속 2회 및 계학중 3회	12~18	S
2.00미만	2	· 계학중 4회	8	H
	3(3,4학년)	· 없음	—	Y

<표2>학생성취의 차원비교 차원비교

	1981년 입학생	1980년 입학생
표 집 수(N)	100	94
성적평가(M)	80	82.457
표준편차 (SD)	8.712	6.843
평균학점(GPA)	0.748	1.991
의미도(CR)	11.422 P<0.05	

<표3> 지능지수의 평가치의 의미도

	1981년 입학생	1980년 입학생
표 집 수(N)	100	94
평균점(M)	108.888	114.3±6
표준편차 (SD)	6.394	8.199
평균학점 표준편차(SM)	0.432	0.716
의미도(CR).	3.193 P<0.01	

율은 1980년 1:27이었으나, 1981년 학생 증원에따라 1:34로 증가한므로최소한 1980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수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과 객관성을유지하도록 1학년 교양과정에서 동일교과목이 분반될 경우 공동으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출제, 공동채점을 권장하고 있다. 성적결과의 보고는 상대분포에 의거 B이상 전체60%, C이하 전체 40%의인원비율로 평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대생략>

이상과같이 서울시내의각 대학은 학생의 증원에따라 아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각종 교육계획방을 시도하여 최소한 학생증원 이전의 교육의 효과라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졸업정원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학업성취도를 극대화함으로 공평하게 평가하는것에 앞서서 중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여건을 갖추는것이 선결문제이므로 여러가지 현실정아래에서 각대학은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졸업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학내 교육의 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교과과정과 1학년의경우 필수교양과목 및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학점을 부는경우 졸업에 필요한 권제학점에 미달되므로 그만큼 졸업을 늦게된다. 여기에다 2회이상의 제한을 받게되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아 8개학기에 졸업할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자진해서 학적을 비밀수 밖에 없다. 예컨대, <표1>에서 평점이 1.30미만으로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학기의 수강학점에서 9학점을 제한받게되어 9학점을 뺀 12 학점(21학점-9학점)으로써 수학하여 또학사경고를 받으면 제한학점 18학점이 되어 졸업은 불가능해진다. 18학점이 되어 졸업은 불가능해진다. 1981학년도 이전의 학생에게는 제한 학점 대상자이미라도 모자라는 학점은 계속 채워 넣도록 기회는 주었지만 1981학년도 부터는 이 기회마저 없애버리고 제적시키게 된다.

대학마다 학사고제제운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 대학의 학사운영및 교육적여건이다르다는 감안할때 일률성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졸업정원제와 학업성취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졸업정원제는 대학의면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졸업정원제가 면학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하였고, 또 지능이 높으면공부를 잘 하고, 낮으면 못한다는 지능의 학업성취결정론이 아닌 학생의 노력여하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데 그 주요한 요인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서 자료의 표집은 서울의 5대학 동일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1980년 입학생 150명, 1981년 입학생 150명씩 무작위표 표집하여 그들의 1학년때의 학업성적과 지능지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통계처리 과정에서 지능지수가 기재되지 않은 학생(지능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은 제외시키고 비교분석하였다.

<표2>의 분석을 살펴보면 1980년 입학생이 1981년 입학생보다 학업 성취의 평균이 2.457점이 얼마만한 의미가 있느냐를 분석한결으나 5%수준을 훨씬 넘는 범위에서 의미있는 결수임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1980년 입학생과 1981년입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두집단간의 의미있는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단간의 지능지수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3>의 두 집단간의 지능지수의 평균치에 있어서 1980년 입학생이 1981년 입학생에 비하여 5.5가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지능의 차이 5.5는 1%미만의 범위에서 의의있는 차이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표2>와 비교하여 보면 지능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놓고 볼때 졸업정원제가 학생들의 학업에대한 노력을 유도하였고, 학습동기를 높이고 있음을 알수있다.

Ⅳ. 졸업정원제의 정치를 위한 제언

이상에서 대학의 졸업정원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것들은 졸업정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고, 현재의 대학교육여건은 졸업정원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현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현재 일정 비율에 의한 중도탈락방법을 지양하고 준거지향 평가방법으로 대학의 평가체제를 개선해야한다.

졸업정원제의 근본 취지는 「잘 가르치고 열심히공부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고 난 후에,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준준거참조평가방법(상대평가)의 일정비율이라는 굴레에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걸어놔서 평점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나, 이것은 졸업정원제의 근본취지와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열심히 가르쳐도 그 비율만큼은 낙제생을 만들어 내야하고, 또 학생으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도 일정비율이라는 장가에에 걸려들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교수나학생이 서로 당연한 것처럼여길 때, 교수는 인간능력에 대한 결정론적 사고관을 갖게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외미를 상실하게되고 학생은내가 달성하야 할것은 목표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의 수준은 무엇이던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시험 점수가 높으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정상적인 경쟁심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짜아내리는데도가 현상황 위임이다.

졸업정원제는 ①준거지향적 평가방법으로 ②능력별 학점취득제 ③학점제한 철폐와 제적조건 완화 ④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올바른 학문의 성취의 풍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문그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목표가 경쟁대상이 되어야하고, 그목표를 학생들이 달성시켜야하는 기준으로 제시될때 교육적 노력이 의미를 갖게된다. 그럼에 반하여 졸업정원제는 3학년 전급시 졸업정원의 10%이내,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졸업시깨진도 중도에 탈락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정비율은 오히려 상대평가를 조장하는 결과를빚을우려가있다.

둘째 능력별 학점취득제를 제도화한다. 능력별 학점취득제는 모든 학생들이 제학기간의 수학을 일률적으로 끝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진도와 성취능력에 따라 그 재학기간을 융통성있게 하여 주자는데 있다.

즉 능력이 있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획수케하여 3년 또는 3년반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있게하는 것이다. 1981학년도부터 제안되는 졸업정원제는 학업성취에 미달되는학생은 중도탈락시키는 것만의 성취를 인위적으로 걸어놔서 평점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나, 이것은 졸업정원제의 근본취지와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열심히 가르쳐도 그 비율만큼은 낙제생을 만들어 내야하고, 또 학생으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도 일정비율이라는 장가에에 걸려들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교수나학생이 서로 당연한 것처럼여길 때, 교수는 인간능력에 대한 결정론적 사고관을 갖게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외미를 상실하게되고 학생은내가 달성하야 할것은 목표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의 수준은 무엇이던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시험 점수가 높으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정상

적인 경쟁심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짜아내리는데도가 현상황 위임이다.

외대발전을 위하여

2. 교과과정·학점

대학은 인격수양과 학문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학문연구와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그 학교의 교과과정이다. 이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보면 그 학교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진 교과과정을세우고 보다 나은 커리큘럼의 작성을 위해 부단히노력하기 마련이다.

지난80년 본교에서도 종합과제로이 발표되자 그 종합과의 준비위원으로서 많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주기 위해 「단과대학 의대」로 존재하던 때보다 획기적인 교과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조치는 종합화이후 복잡해진 업무를 위하여 미리 취해진 것이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상태에서 살펴보면 적지 않게 보람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커리큘럼의 개편으로 교양과목이 증설되고 전공선택과목의 선택이 확대되어진 것은 획기적인 변동으로서 그동안 어학의대의 련협성을 밝히하고 교육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또 실용어학 위주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주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본교의 어학과에서는 문학이나 지역사정등을 세분하여 연구할수 있는 과목이 별로 많지 않으며 아직도 어학위주로 전공과목이 개설되어져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강화가 필요이상으로 중복, 세분화되어 있어 「타이틀은 다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동일학문이라면 어느정도는 연계성을 가지게 마련이나 그 고유영역이 서로 대동소이한것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교과과정심의회의 이은진교수는 「심의회에서 전 학과의 커리큘럼을 완전하게 만들어낼수 없으므로 전공학과 내에서 결정을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비교해 비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부전공에 관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부전공을 선택함후 도중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전공 과목에 관해 미리 오리엔테이션등의 사전과에 한해서 부전공을 개설하고 또한 교수들의 문제를 들어서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의 근본이념이부합할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법정·상경·문리대학의제 2외국어는 몽·서양어대학의 제2외국어와 달리 1년동안만 배우고 있는데 이는 어학이 단시일내에 습득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괘고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의 개편전까지는 2년동안 배워왔으나 교과과정 개편이후 법정·상경·문리대학이 교

차 례

1. 대학의 사회개방
2. 교과과정, 학점
3. 장학제도
4. 음악캠퍼스건설
5. 대학문화증흥, 학생활동
6. 외대인의 얼

들는다는 어학의 기본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느낌이다. 이것 역시 제한된 전공과목 부족한 교수진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시설과 교수요원을 확보하여 공부도록 해야 한다. 단지 은영상의 문제나 행정적인 처리의 복잡성을 덮기위하여 심오한 이론의 탐구라는 대학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본교에서는 실험대학으로서 140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학점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표에도 남게되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본교의 제한학점과학사경고는 카끌할 정도도높은 실정이다. 작년의 경우 1학년에서만 900여명의 학사경고자가 나올정도로 제한학점이 높았으며 이를 타교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타교의 학사경고의 해당자는 학점의 평점이 1.5나 1.75미만이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주고 있으나 본교에서는 평점 2.5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주고있어 많은 학생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취업후를 위해서인지 학점을 비교적 잘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보다는 완전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학점을 주고 제한학점도 그에 맞추어 내려야할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레포트등도 제출물 위 평가만 내리기보다는 다시 돌려 주어 레포트등에 대한 평가나 지도등을 해 주어야한다.

학점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학생들도 깊이 인식하여야 할것이며 그보다 앞서 학문의 전당에서 그 본연의 외무를 수행해야 할것이다.

<허남린기자>

누구를 위한 재회의 밤인가

—만방의 뭐가 필요한 Home Coming Day

이 경 욱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홈커밍데이 (Home Coming Day)라는 행사가 일년에 한번 정도 열린다고한다. 쉽게 말하자면 졸업생들이 모교에 다시모여 지난 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희상에 잠기고 또한 모교와나는 날리을 위해 그 방안을 토의하여 증지를 모으기도 한다는 못있는 행사인것이다. 동문선배들은 후배에게 지난 날 학창시절의 낭만과 추억을 얘기하기도 하며 시행착오의 교훈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가 어떻게 된 미래가 된다는 점에서 후배들에게는 그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 행사를 통한 동문선후배간의 만남과 충만함은 물질적 가치로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행사가 들어와서 우리 학교내에서도 꽤 자주 열리고 있다.

「우리는 늘 높고 먼 하늘을 나르지만 끝내는 옛집에 모이는 비둘기…」

지난주 토요일 대강당에서는 서반아어과 동문회모임인 '재회의 밤'이열렸다. 물론 이 행사는 라틴에슬제라는 종합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이 행사를 계승부터 끝까지 지켜본 필자는 그 행사 존재여부의 타당성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행사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넋두리 정도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아쉬웠던 점의 하나는 모든 학생주최행사가 그러하듯이 행사재원 (財源) 확보의 문제였다. 우리 학생회 체지로서는 꽤나 큰 예산이 소요됐던 이번 행사에는 (물론 동문의 밤 행사만은 아니었다) 과외비 보조만으로는 그 자체가 부족하므로 행사준비위원들은 직접 동문들의 근무처를 찾아나서 재원의 확보에 노력했었다. 물론 선뜻 얼마간의 성의를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않았다. 그까짓 저녁술값 정도야하는 수도 있겠지만 선뜻에 마르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행사의 목적과 의의, 특히 그 결과에 대해 내심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일을 하는 것은 또한 학생의 도리일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행사는 가능한한 동문 부담에의한 재원마련보다는 과외비 항도에서의 지체조달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축소 내지는 포기가 바람직할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행사내용의 다양함과 화려함등양제라는 종합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이 행사를 계승부터 끝까지 지켜본 필자는 그 행사 존재여부의 타당성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행사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넋두리 정도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쉬운 점이 서어과 자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해야 한다

아쉬웠던 점의 하나는 모든 학생주최행사가 그러하듯이 행사재원 (財源) 확보의 문제였다. 우리 학생회 체지로서는 꽤나 큰 예산이 소요됐던 이번 행사에는 (물론 동문의 밤 행사만은 아니었다) 과외비 보조만으로는 그 자체가 부족하므로 행사준비위원들은 직접 동문들의 근무처를 찾아나서 재원의 확보에 노력했었다. 물론 선뜻 얼마간의 성의를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않았다. 그까짓 저녁술값 정도야하는 수도 있겠지만 선뜻에 마르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행사의 목적과 의의, 특히 그 결과에 대해 내심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일을 하는 것은 또한 학생의 도리일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행사는 가능한한 동문 부담에의한 재원마련보다는 과외비 항도에서의 지체조달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축소 내지는 포기가 바람직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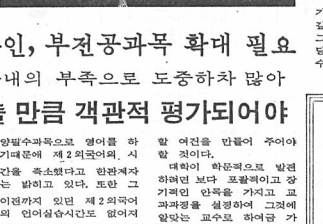
또 다른 하나는 행사내용의 다양함과 화려함등양제라는 종합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이 행사를 계승부터 끝까지 지켜본 필자는 그 행사 존재여부의 타당성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행사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넋두리 정도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쉬운 점이 서어과 자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해야 한다

선후배 참여할수 있는 질적 향상이 과제
의식의 화려함보다 우애교류의 계기를

당성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행사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넋두리 정도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쉬운 점이 서어과 자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해야 한다

아쉬웠던 점의 하나는 모든 학생주최행사가 그러하듯이 행사재원 (財源) 확보의 문제였다. 우리 학생회 체지로서는 꽤나 큰 예산이 소요됐던 이번 행사에는 (물론 동문의 밤 행사만은 아니었다) 과외비 보조만으로는 그 자체가 부족하므로 행사준비위원들은 직접 동문들의 근무처를 찾아나서 재원의 확보에 노력했었다. 물론 선뜻 얼마간의 성의를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않았다. 그까짓 저녁술값 정도야하는 수도 있겠지만 선뜻에 마르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행사의 목적과 의의, 특히 그 결과에 대해 내심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일을 하는 것은 또한 학생의 도리일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행사는 가능한한 동문 부담에의한 재원마련보다는 과외비 항도에서의 지체조달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축소 내지는 포기가 바람직할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행사내용의 다양함과 화려함등양제라는 종합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이 행사를 계승부터 끝까지 지켜본 필자는 그 행사 존재여부의 타당성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행사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넋두리 정도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쉬운 점이 서어과 자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해야 한다



야간 강좌·용인, 부전공과목 확대 필요

부전공, 사전 안내의 부족으로 도중하차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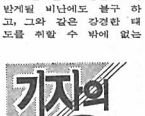
제한학점 낮출 만큼 객관적 평가되어야

흥보가 부족한 결과이다. 또한 2부대와 용인대의 경우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 한해서만 부전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있으며 배우고 싶어도 이렇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의 원칙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나, 가부전공을 일으킬 정도의 과목한 강을 지을수 없다.

물론 과외장단이 시험거부 불사를 표명함으로써 받게될 비난에도 불구 하고,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수 밖에 없다. 비근한 예로 이번 중간고사만 하더라도 세번씩이나 수정 발표하는 우 (愚)를 범 수 있다.

학교측의 「학생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요구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수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는 시험에 대비할만큼의 충분한 사전통보나 시간적 여유없이 시험을 공고한 이번의 경우외에도 과거의 학교 행정이, 학생활동을 심히 위축시키고 제약할 정도로 시간상의 장애를 빚어왔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



학생의 의사수렴에 있어 충분한 검토 고려돼야

시험거부 불사는 시기의 부적절성과

동기와 결과의 연결이 무리

일(10월 4일) 3시간여의 회의 진행 끝에 「시험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안(案)에 전원 동의했다는데, 과연 얼마만큼 파의장들이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신중했는지 그것부터 의문이 간다. 그리고 파의장들의 의사를 중참하여 작성했다는 「결의문」은, 결의문이라는 형식의 강요에 의해 내용이 당초의 의지에 비해 강경해졌으리라는 점을 심분 감안하더라도 졸속한 인상

창강학의 일정 변경 잔조현 학의 일정 변경 잔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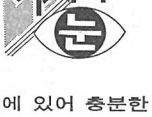
—수학 여행과 중간시험 거부

한편이 비록 내용없는형식이고 실속없는 명분일지라도 협력문을들고 나오고 다른 한편이 이에맞설 때는, 사실 없않아 공세한이유나 건강부회적인 논리를 들어들이게 된다. 이렇게되면 서로 맞섰할 것하나 없는 대립이 되고 심한년이 전부무의 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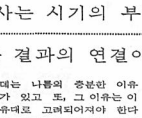
이번의 3학년 수학여행과 중간고사 실시에 관련하여 학교측과 파의장단 간에빚어진 일련의 사태도 서로간의 실책에서 빚어지는바 난으로 인해, 양편 다 먹칠을 당하는 창피를 면할 수 없다. 많은 학생들의 무관심과 일부의 노골적인 불만표시는 이를 말해 준다.

파의장단의 「시험거부」의 결의는, 나열된 거부의 이유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일을수 없었는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험거부만 태도의 표명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본분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파의장단이 지난주 월요



기자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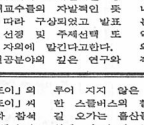


행동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는사표(師表)

—상경대학 교수 세미나를 보고

지난학기초에 자체적으로 추진되어 것선을 보였던상경대 교수들의 경기세미나가 결차 활발한 활동을보이면서 학생들은 물론 교수사이에서까지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끌고있다. 지금까지 교수들이 이와같은 경기세미나 형식을 통한공동관심분야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모임을 가지기 「상경대교수 세미나」가 처음으로 다른 교수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학문연구의측진시키고 제약할 정도로 시간상의 장애를 빚어왔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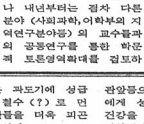


폭넓은 학문 활동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

공동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론 영역 확대

오는 11월말 제5회 세미나를 개최하게됨으로써 82년도를 마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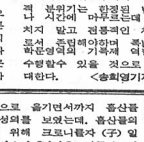
상경대에 재직중인 전 교수 (21명) 들로 구성되어 경제, 경영, 무역 등 세분야



교수본연의 학문적 자질향상이 주목적인 이 세미나는 순수한 학술적 모임으로써 짖수를 거듭할수 수록 연구의 심화는 물론 논제의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동료 교수들간의 우의도모에 성과가 있다고 한다.

많은 강의와 업무에 따른 연구시간의 부족이 문제점이긴 하나 현실적인학구적 욕구충족와 교육전수에 차질이 없도록하기위해 교수전원은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주제토론은 물론 외국학계동향이나 학생지도방향에 대한 공통의견도 모색되어진다고 한다.

올해는 첫시도로써 상경대 교수들만의 모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점차 다른 분야 (사회과학, 어학부의 지역연구분야등) 의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학문 토론영역확대를 겨도하고있으며 보다 폭넓은 학문적 토론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과도기의 스쿨버스

○…연휴의 기쁨을 한껏 음미하려는듯 지난 9일 오후 동심에 젖은 슬래장기 (?) 가 교정에서벌어졌다는데.

이유인즉, 이웃의 대학교 학생들이 슬래를을 피해서 본교까지와서는 한바탕놀이 (?) 를 펼치다 우리 흡산사이로 잠적해버려 슬박꼭질은 끝이 났다고.

슬래를 가면서 하는 말이 꼭 죽 슬어버린 K대 학생보다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해준 우리 흡산들이 더 미웠다고 투덜투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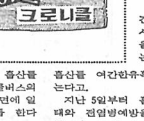
○…초청강연회나 특강은 강사를 초청하고 장소를 빌려 주어 전평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나고 겉은하는 흡산들이 많은데.

지난 7일 대문호 「톨스토이」의 증손자인 「니콜라이 톨스토이」서강연회에 관객 기대에 사 점보였던 흡산들, 행여없이 전평된 순영국식 영어 강연에 시종 침묵이 흘렀다는데.

이에 의대에일침을 가한 고마운 손님을 초청한 주최측에바라옵건대, 아직 어린 흡산들을위해 좋은 기획과 내용에 흡족한점에 이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소.

○…며칠전까지도 항인 흡산들의 낯이 되어 왔던 스쿨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지되는 반면에 일반시외버스는 흡선을 거듭 한다고.

문국자들의 「선 (善) 제도」를뛰어 한 「악 (惡) 제도」의 폐지는 섭정 (?) 의 발로이겠지만, 시간이 소승이라는 격언이 스쿨버스에도 적용됐군요.



○…예정된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면서 흡산들을 유혹 (?) 하는 데에도 우리는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흡산들을 어간한유혹에 넘어가지않는다고.

지난 5일부터 흡산들의 건강상태와 전염병예방을 위해 X레이 촬영이 있었는데 이에 흐응한 흡산들이 극히 꾀어 장소를 도서관앞들으로 옮기면서까지 흡산들에게 성의를 보였는데. 흡산들의 건강을 위해 크로니틀자 (字) 일인하겠사오니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소이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찌 그공을 이루겠소.

지난 일요일 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많은 흡산들이 모여서 수위아저씨들이 가져다 놓은 TV를보며시끄럽다는 도서관에대한 불만을 가중시키는데 일역을 담당하였다고.

TV를 보면서 부표한을 달때고 있는 흡산들, 집에서 프로야구나 연속극이나 즐기지지 부엌하려 도서관에 나와서 자리잡기 경쟁에 경쟁률 높이는지…

염불보다 잿밥에

⑤우리나라 중공업의 발자취(계철공업 편)

우리 民族의 저력과 슬기는 重工業 立國의 意志를 實現하고 있읍니다.

조선시대 대장간풍경 (金禧臣의 풍속도)

문명의 어머니, 산업의 쌀등으로 불리워지는 철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분리될수 생각할수 없을정도로 밀착되어 있을뿐 아니라, 한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곧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굴직인 철강업의 발전없이는 산업의 발달이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의 역사는 멀리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일례로서 철제의 부두 (斧頭)·철촉 (鏃鏃)·철기파편 및 철괴 (鐵塊) 등이 김해패총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삼한시대의 마한에서는 철로 화폐를 만들어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했다 하며, 삼국지 (三國志) 위지 (魏志) 동이전 (東夷傳)중 한전 (韓傳) 에도 우리나라에서 철을 생산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700여년 전에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15세기 초 세계최초의 철강선을 만들어 찬란하고도 자랑스러운 철의 문화를 꽃피웠으나, 근대적 의미에 있어철강공업은 20세기초 약간의 제철시설을 건설한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철강공업을 비롯한 전산업이 식민지 지배, 세계2차대전, 한국동란 등을 겪는 가운데, 전화, 혼란으로 인한 극심한 타격을 받아 자주성있는기초를 설정하지못하고, 단지 철금, 못 등의 사소한 철강제생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철강공업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껴오던 당시의 정부는 1953년 6월 현인천제철의 전신인 대한중공업공사를 창립하고 연산 10만톤 생산능력을 갖춤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제철공업의 효시를 이루게되고, 이 공장의 가동으로 얻은 경험은 그후 철강공업 발전에 중요한 자료와 교훈을 준 셈이다.

현대식 제철소의 효시인 대한중공업 (現 인천제철)

60년대의 경제발전은 철강제의 급격한 수요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적응해 대형제철소를 건설해야 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포항제철이었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선두주자인 현대는 이 대규모공사에 착수하여 갖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973년 7월 조강 103만톤, 계품 87만톤의 국제규모급 제철소를 성공리에 완성하고 4개월만에 정상가동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선진철강국과 비견할수 있는 철강공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는 그이후도수차례의 포항제철확장공사에 참여, 연 850만톤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굴지의 제철소를 이루어 놓았다.

현대가 참여 완성한 포항제철 전경

한편 1978년에는 국내 철강업의 모체이자 효시이면서도 여러 계약조건으로 준영년에 허덕이던 인천제철을 현대가 인수하여 정중적으로 투자와 시설을 확충, 불과 3년만인 1981년에 1억불 수출의 말을 수상하고 또한 국내 민간업체 중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급상장을 이룩했다. 특히 금년 3월 한국 최초로 35만톤 규모의 최신식 환전자동 합연탄-철강 공장을 완성해, 건축기자재부문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과 동시에 연산 120만톤 규모의 국제 수준급 생산능력을 보유케 되었고, 에상되는 철강수요에 대비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제철이 국내 최초로 자체생산에 성공한 합연탄형강공장 내부

젊은이의 우상들

김 영 희

Ⅰ. 젊음이 숭배하는 것

어느 사회라 일러 말할 것없이 젊은이는 「젊다」는 그이유 하나만으로서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젊은이들이 오가며 무심코 뱉지는 말 한마디, 지나치다가 일결에지지른 하잖은 행위까지 노는이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수 있다. 젊은이같은 그들이 소속한 사회의 「미래의 주인공이요 희망의 증추」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쏟아져 이어지는 「관심표명」에 일을 들킬 수만은 없다. 그리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기회만 생기면 충고하고 비판하는 고언(苦言)의 행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행하는 행태(行態)를 미래예측의 지표로 삼아 「영광」과 「암흑」「실망」과 「기대」의 앞날이 점쳐지는 근거가 되고 있는것이다.

멍텅하는 조명속에 헌탄한 음정으로 악(樂)를써대는 어떤이가 하루 아침에 젊은이들의 공으로부상되기도 하고 한치 한푼의 오차도 허용치않는 노학자의 명쾌한 논리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푹 빠져들기도하며 들러쌓인 군중속에서 사자후(獅子吼)를 토해내는 이에게 젊은이들은 또 한번 열광하기도 한다. 그 누군가는 이들을 불러 「우상」이라 이름했다. 한번 「우상」으로군림하면 건전한 관심을 넘어서는 과열이 빚어지기마련이고 나중에는 그를외사하는 찟가빡까지 끝없는 입담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상」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또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얘기들이 젊은이들의 사고상태 대부분을 점유하는 의식의 보편성이라고 장면할 수도 없다. 다만, 한 우상의 탄생이 그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층들의 습겨진 의식의 구체적 출체라는 인식의 전제에 점의 (同意) 를 할 수 있다면, 전혀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써까지 일반화되었다. 탈춤이 젊은이들의 살풀이의 장(場)이고, 현실에의 배반감, 뜻한 울분을 카타르시스하는 통로라는 인식이 많은 학생들에 의해 의심없이 수용되거나 최소한 발춤의 역할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물론 탈춤에는 소외된 계층이 자신의 결핍된 삶을, 놀이의 형식을 통해 재창조하고 승화시키는 제의성(祭儀性)이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더 시원적(始原的)으로 시야를 확대해갈 때 탈춤속에 내재하는 형이상학적 의미에 주의하지 않고있다는 외문을 갖게 된다.

「놀이」로서의 탈춤은 논하기의 극적인 예를 들어서, 휴머니즘이 넘쳐오는 민중에 대한 믿음텍스, 보상심리에서 민중이 갖고있는 실제이상의 의미를 관념속에 부어 넣어가지고 민중에 대해 「경당한우의」가 아닌 자기주체의 굴복의 관계가 될 경우 민중이 하나의 우상이 될수도 있다.

Ⅲ. 대중적 우상

젊은 세대에 있어서 대중적인 요소의 우상은 그들의 감각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고 또한 이 감각의 체험을 통해 고착되어 갔다. 때문에 보편성과 지면적인 통속성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그들의특성인 무절제한 몽경, 향락적인 탐닉, 에술지향성등 인기관심도로 표출되어 위치를 굳혔다 할 수 있다.

「민중」을 생각할수있다.

민중의 의미를 통념적으로 일반에 대응하는 소외된 계층, 즉 주체적으로 노동자, 농민이란 의미에 국한한다면, 우리는 민중이될 수 없고 기껏 농민의, 노동자의 아들, 민중의 친구로써만이 민중에 접근할수 있을 뿐이다.

민중과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리와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박한 논리나 충동적인 정리(情理)의 차원으로 선부른 민중과의 일체를 믿는다면, 서로가 상처를 입은 결과가 된다.

「민중」은 실체이지 관념이 아니며 우리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민중이 아님을 명백한 사실이다.

□판단기준의 모호와 절대적 가치의 소홀에서 우상은 범람한다.

본래의 형이상학성 무시한 탈춤, 우상이 될 수 있어
대중의 충동적 정서,무력감이 대중 인기인을 우상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비록 한 단편적 관심의 소산일망정 자리잡은 젊은이들의 우상속에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대체적 의식성향을 감히 점검해보려는 오만에 당치않은 용서를 빌 뿐이다.

Ⅱ. 우상으로서의 탈춤과민중

70년대부터인가, 탈춤은 대학가의 하나의 상징으로써까지 일반화되었다. 탈춤이 젊은이들의 살풀이의 장(場)이고, 현실에의 배반감, 뜻한 울분을 카타르시스하는 통로라는 인식이 많은 학생들에 의해 의심없이 수용되거나 최소한 발춤의 역할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물론 탈춤에는 소외된 계층이 자신의 결핍된 삶을, 놀이의 형식을 통해 재창조하고 승화시키는 제의성(祭儀性)이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더 시원적(始原的)으로 시야를 확대해갈 때 탈춤속에 내재하는 형이상학적 의미에 주의하지 않고있다는 외문을 갖게 된다.

「놀이」로서의 탈춤은 논하기의 극적인 예를 들어서, 휴머니즘이 넘쳐오는 민중에 대한 믿음텍스, 보상심리에서 민중이 갖고있는 실제이상의 의미를 관념속에 부어 넣어가지고 민중에 대해 「경당한우의」가 아닌 자기주체의 굴복의 관계가 될 경우 민중이 하나의 우상이 될수도 있다.

Ⅲ. 대중적 우상

젊은 세대에 있어서 대중적인 요소의 우상은 그들의 감각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고 또한 이 감각의 체험을 통해 고착되어 갔다. 때문에 보편성과 지면적인 통속성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그들의특성인 무절제한 몽경, 향락적인 탐닉, 에술지향성등 인기관심도로 표출되어 위치를 굳혔다 할 수 있다.

민중의 의미를 통념적으로 일반에 대응하는 소외된 계층, 즉 주체적으로 노동자, 농민이란 의미에 국한한다면, 우리는 민중이될 수 없고 기껏 농민의, 노동자의 아들, 민중의 친구로써만이 민중에 접근할수 있을 뿐이다.

민중과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리와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박한 논리나 충동적인 정리(情理)의 차원으로 선부른 민중과의 일체를 믿는다면, 서로가 상처를 입은 결과가 된다.

「민중」은 실체이지 관념이 아니며 우리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민중이 아님을 명백한 사실이다.

문화시론

그러나 위와 같은 추세가 곡 부정적으로 만 받아 들여지는 것은아니다. 열광과 몽경 사람들 우상에 대한 관심도는 그들의 정서순화, 자신의 향몽에대한 자족(自足), 학교·가정 및 사회로부터 습관과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부터의해소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대중우상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보면, 인기도의 시록이 짧은것이 특징으로, 연예인, 체육인, 인기 소설가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에 있어서 갑수성의예민과, 전반적인 관단력의미흡에 기인한다 하겠다. 또한 대상에 대한 몽경의 심도는 압도적인 열광으로나 이러한 경향을 맥부한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받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그 감각기능을 달리하고있다」고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인해 관단기준의 모호와 절대적가치의 소홀이 대두되기도 했다.

단순히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순간 순간이 얼마나 부서진 현실임을 부 마디의 명언과 한 잔의 술잔으로써 달래려 하는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번성했던 옛날을 생각케 한다고 말하기 보단 차라리 폴이라도 한포기 뽑아 터를 닦음이 낫다고 생각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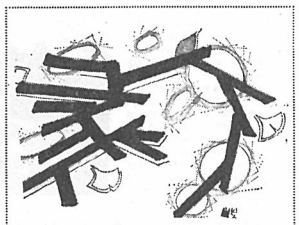
돌부딪에 돌 하나 더함이 하나의 의식이라 자위하기 보단 하나 하나 제처보면서 미로를 도로함이 오히려 실존이라 믿기지 않는가.

뛰면서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뛰는 것, 뛰다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약한 존재의 망설임이야를 흔드는 아가미는 휴 ㅁ기 자세임을 생이를 나는 바늘로 설명할수 있다 여기는가.

비려진 나무에 곰팡이가 생존하고 이끼 낀 돌틈에 거미줄이 쳐져 있음을 수도승의 도포자락으로 덮어 부려 하는가.

한낮의 찌는 더위, 수레를 끌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검은 손 검은 얼굴을 만가진 바구니에 은전 세 닢과 다섯개의 동전을담고 명한 눈으로 사방을 구경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는가.

바닷가 더른 개펄, 수없이 들린 구멍 위로 파도가 밀려오고 그파도에 부딪힌 사연들은 거품이련만 한줄기 광선이 피부성이가 된 날개 죽지를 애무하고 시력으로 하루의 공간을 넘힐때, 먼저해방된 먼지들의 표류를 보게 된다.



한줄기 광선이 피부성이가 된 날개 죽지를 애무하고 시력으로 하루의 공간을 넘힐때, 먼저해방된 먼지들의 표류를 보게된다.

그만 그만한 세상, 콘크리트 벽과 녹슬 철근 너머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재도구들이 눈에 띈다. 사방 하나 보이지않는벽 속에 대문이 열려져 있다.

새 소리 하나 끌리지 않는다

Ⅱ

친구,

무엇을 말하는가.

이월은 등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철없는 아이처럼 떠드는 곡조와하고 때로는 방자하면서 그런대로 한세상 보내고 있는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사물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긍정지못하고 현실도피로써 미사여구의 틈바구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단편화된 상처로 흩로 걷는가.

기억 속에 추락하는 꿈의 자람이 대지를 기는 개미의 가는 허리로 받쳐드는 중력만큼이나 허무한마음에 사람을 위해 예술을 바리지 않겠다던 이사도라의 긴 머플러처럼 효느끼고 있는가.

Ⅲ

단전 창틀으로 바람 냄새가 나다.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 잠시 쉬어가는자리, 잠시 스쳐가는 사람, 뜨거운 대양으로 정열된 불꽃나 성을 곳이 없다. 어제를 위해 오늘이 존재하진 않아도 오늘을위해 내일이 있는데 오늘은 항상 허무로 범벅된 맛을 요구할 뿐이다. 나를 위해 세상이 움직이진 않아도 세상과 나는 움직임을 필요는 있는것, 그러나 허무.

붉 반쯤 타다 남은 숯자들이 눈에띈다.

…때로는 아가미로 때로는 날개로 해기했지, 물부딪에 튀 하나 더함이 하나의 의식이라 자위하기보단 하나 하나 헤쳐보면서 미로를 도로함이 오히려 실존이라 믿기지 않는가라고…멀리서 바다 냄새가난다. 멀리서 삶 냄새가 난다. 부르는 소리가들린다.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일어서야지, 일어서야 해. 일어설… 수가 없다. 그렇지 이제 깨어날 거야. 머리를 다쳤지. 쉬어야 했어. 모든게 단절된 공간하에서 시간조차 의식할 수 없음에 낯설은 달력을 보며 외아해 했지. 그리고 잠시 후에 알았지. 삼일이란 시간이 내겐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실존이었어. 실존을 느낀 거야. 정녕 슬픈 아니었으니까 뱌면 비가 오고 그때처럼 난 비가 맞고 싶었지. 소리쳤어. 창틀으로 비가 바람을 몰고올때 알게 됐지. 혼자임을. 친구, 내일은 그림구하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R · 3>

미로를 헤쳐 나감이 오히려 실존이라 믿으며…

김 창 호

Ⅰ

종은 공간, 이방인의 영혼에 열려진 우주의 청량감이 스미여를 때, 채색된 세상의 푸르른 껍질을 까 불기로 하자.

어둠 속 하늘의 별을 따며 손에 쥐신 차가움이 비단 감상만은 아닐진데, 그 위로 떨어지는 여운은 무엇으로 설명하랴.

잔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던 낙엽처럼 쉽게 주어 담을 수 있는 별이라면 책갈피속 고이 고이 간직해 두련만, 세월이 감을, 시간이 흐름을 느낄 틈도 없이 또 하나의 사라짐을 보아야 하는데.

인고의 싹에마저 보리고개의 곳생주위가 밀어닥치는 혼돈의 세상은, 한 줌의 함뿌림 찾으며 온 산을 헤매는 갈증에다 오아시스의 신기루를 투영시키며 붉은 혓바닥이 날름거리는 사막으로 유혹한다.

불나비의 트거움이 하루살이의 허무로 변하는 순간은 왜 그리도 길기만 한지. 침묵. 달력전 장.

한 줄기 광선이 피부성이가 된 날 날개죽지를 애무하고 교쟁됨 시력으로 하루의 공간을 넘힐 때, 먼저 해방된 먼지들의 표류를 보게 된다.

그만 그만한 세상, 콘크리트 벽과 녹슬 철근 너머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재도구들이 눈에 띈다. 사방 하나 보이지않는벽 속에 대문이 열려져 있다.

새 소리 하나 끌리지 않는다

Ⅱ

친구,

무엇을 말하는가.

이월은 등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철없는 아이처럼 떠드는 곡조와하고 때로는 방자하면서 그런대로 한세상 보내고 있는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사물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긍정지못하고 현실도피로써 미사여구의 틈바구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단편화된 상처로 흩로 걷는가.

기억 속에 추락하는 꿈의 자람이 대지를 기는 개미의 가는 허리로 받쳐드는 중력만큼이나 허무한마음에 사람을 위해 예술을 바리지 않겠다던 이사도라의 긴 머플러처럼 효느끼고 있는가.

Ⅲ

단전 창틀으로 바람 냄새가 나다.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 잠시 쉬어가는자리, 잠시 스쳐가는 사람, 뜨거운 대양으로 정열된 불꽃나 성을 곳이 없다. 어제를 위해 오늘이 존재하진 않아도 오늘을위해 내일이 있는데 오늘은 항상 허무로 범벅된 맛을 요구할 뿐이다. 나를 위해 세상이 움직이진 않아도 세

학생수필

상을 위해 나를 움직일 필요는 있는것, 그러나 허무.

붉 반쯤 타다 남은 숯자들이 눈에띈다.

…때로는 아가미로 때로는 날개로 해기했지, 물부딪에 튀 하나 더함이 하나의 의식이라 자위하기보단 하나 하나 헤쳐보면서 미로를 도로함이 오히려 실존이라 믿기지 않는가라고…멀리서 바다 냄새가난다. 멀리서 삶 냄새가 난다. 부르는 소리가들린다.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일어서야지, 일어서야 해. 일어설… 수가 없다. 그렇지 이제 깨어날 거야. 머리를 다쳤지. 쉬어야 했어. 모든게 단절된 공간하에서 시간조차 의식할 수 없음에 낯설은 달력을 보며 외아해 했지. 그리고 잠시 후에 알았지. 삼일이란 시간이 내겐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실존이었어. 실존을 느낀 거야. 정녕 슬픈 아니었으니까 뱌면 비가 오고 그때처럼 난 비가 맞고 싶었지. 소리쳤어. 창틀으로 비가 바람을 몰고올때 알게 됐지. 혼자임을. 친구, 내일은 그림구하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R · 3>

동심(童心)

정 연 정

마음속에서 뱀틀다
방문에 골아 비지고만
의미없는 언어의 굴없는 나열(羅列)

그 나열뒤에 잇단
억눌림의 서픈 몸짓거리.

그리곤 비겁을 등에 진
결코 강제가 될 수 없다는
착각속의 서려온 강제
또, 자기 기만.

슬쉬고 택싸뛰는 앞에서는
그 방튼 언어의
의미없는 나열마저
버뜻거리고 주저하다가
그저 살아있다는 상상이 가뜩한
허상의 아픈 모퉁이에서는
전혀 발틀지 않은 언어의
짧고 명쾌한 의심마저도
서슴지 않고 마구 내뱉더니…

이 모든 인형의 환상
허기진 인간의
방틀어 찌든 속명쾌 보련화
오늘도 어제처럼
귀밑고 눈먼 네 에미 에비는
쳐없는 네 몸심을 헐값에판다.

<EC · 2>

신간 소개

굴레에서 해방을

크리슈나무르티지음, 이홍재 옮김

인류의 교사로 널리 알려진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의 교육적 인생론이다. 이 책은 자기 깨달음을 통해 모든 억압의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참회에 찬 삶을 며불어 살게 하는 인간해방의 길잡이로써 불랑편하고 모순된 삶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밝힌다. 그가 던지는 말은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을 제시한다.

<심설당간 (刊) 값1,800원>

문화단신

YMCA 강연회

▲시민논단

매주 월요일 (11일·18일·25일) 오후 7시에 YMCA 2층 집교실에서 「경서에의 초대」라는 대제목하에 3주간 계속 공개강좌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 키에르케고르의 사상, 강사 : 임홍갑 (한국키에르케고르학회 부회장)

▲청년 아카데미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중국고대 사상의전개」란 제목아래 강연이10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강사 : 이은구 (성균관대교수) 주제 : 노자의자연관 (15일) 장자의 양가론 (22일) 주자의 자연개조론 (29일)

「악마의 제자」 극단「민중」·「광장」 합연

극단「민중」과「광장」은 함께모여 버나드쇼의 작품 「악마의 제자」를 공연한다.

제19회 동아연극상 참가작품인 이번 연극은 조용한데, 깊고경연물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공연된다.

이번에 공연되는 「악마의 제자」는 남녀로운 비관과 냉소, 사회의 부조리등에대한 정확한 해부를 감명력 있간에의 승리로 승화시킨 버나드쇼의 역작이다.

이번호에 실릴 예정이던 「예술과 사회」 기획시리즈 중 5. 다아윈편은 본보 사정상 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외면당하는 공연예술

자폐돼가는 예술, 우리예술의 현주소
졸업정원제등 대학변혁은 공연예술 외면과 관계

문예산책

가을이 되면 각계에서 음악회, 연극, 전시회등이 줄이어 열리고 있다. 지난 9월에도 대한민국 음악제와 대한민국 연극제, 기타외여러 전시회와 작품전이 있었으며, 각 학교에서는 과별 예술제가 활발하게 열렸다.

그런데 요즈음은 대학인이나 사회인을 막론하고 이러한 예술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같다. 특히 대학이 졸업정원제등의 기파변혁을 겪으면서 연극이나 예술보다는 학점, 출석에 얽매여 조금의 여유도 없는 못하다.

대학에 졸업정원제가 적용되고 난 후 부터 여력히 그 수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다수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전상의 문제등의 탄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점관리와 출석문제 때문에 만큼 곳에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인다. 사실 도서관의 대출현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학생들 중 이나 도서대출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교양도서를 읽는 시간보다 학과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요즈음의 대학생활은 오직 학과공부와 학점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현상이 대학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은 우리 현대인의 생활여건과 태도가 예술이라는 방면을, 시간이 없다는 어떻게보면 타당한 이유를 핑계삼아 고외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요사이 자주 인 그 시대의 대변자임을 생각할 때 대학인이 그 사회의 예술을 외면한다는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현대 지식인의 역할을 누구에게 돌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대학인으로서 인이한 자기변명에 앞서 넓은 안목과 심전 대학생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대학인이 되어야겠다.

10월에 있을 문화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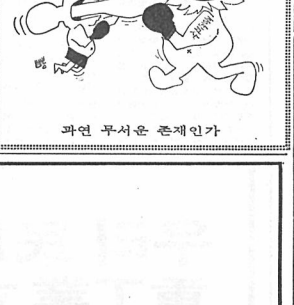
「노녀를 발톱」 극단 「배우극장」 제19회 정기공연, 10월7일부터 20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

·「뚜라기의 사람들」 극단 산울림, 제19회 동아연극상 제6회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작 문예회관 대극장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제24회 방가뚜방전 미술회관 1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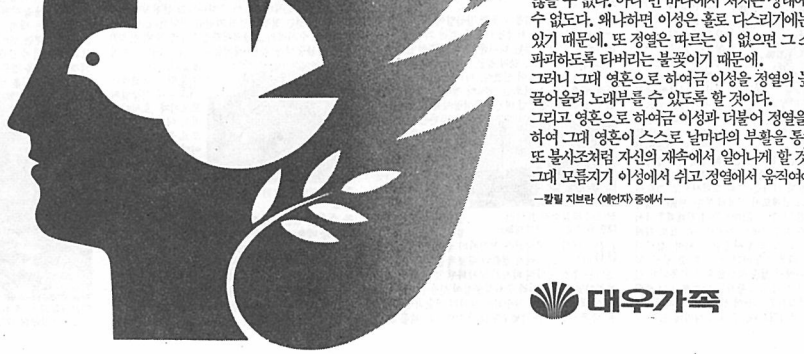
·서양화5인전, 서울 국제화랑 13일까지

·한양음대 국악평기연주회 중앙국립국장 대극장, 12일 7시30분. <배문선기자>



과연 무서운 존재인가

그대 모름지기 이성에서 쉬고
정열에서 움직여야 하리라.



이성과 정열은 그대 항해하는 영혼의 키요, 돛이어라.
만일 돛이나 키가 부서진다면 그때는 동요하여 표류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먼 바다에서 처지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도다. 왜냐하면 이성은 홀로 다스리기에는 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열은 따르는 이 없으면 그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타버리는 불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대 영혼으로 하여금 이성을 정열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노래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영혼으로 하여금 이성과 더불어 정열을 지휘케게
하여 그대 영혼이 스스로 날마다의 부활을 통해 살 수 있고,
또 불사조처럼 자신의 재속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대 모름지기 이성에서 쉬고 정열에서 움직여야 하리라.
—칼릴 지브란 (예언자) 중에서—

대우가족